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8년 10월 21일 (제97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행복(幸福)

‘행복이 무엇일까?’

내 나이 70을 바라보며 종종 나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그 질문에 내가 내린 답은 이것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단 위에서 설교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그것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설교할 때가 정말 행복하다. 비록 힘이 들고 목은 아프지만, 행복만은 넘친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예수님의 행복한 노예라고 말한다. 가수는 노래할 때가 제일 행복하고, 배우는 연기할 때가 제일 행복하단다. 관객 앞에서 노래하기 위해 밤새 반복으로 연습을 해도, 영화나 드라마를 위해 눈 위를 뒹굴고, 물에 빠지고, 위험한 장면을 연기해도 그들은 하나도 힘들지 않다고 한다. 그게 행복이다.

행복에는 커트라인이 없다.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것은 행복의 기준을 두기 때문이다. 대개는 돈을 얼마 가져야 행복하고, 몇 평 이상 되는 아파트에서 살아야 행복하고, 중형차 이상은 타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기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더욱 삶의 불행을 초래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상대적 기준을 두는 경우다. 옆집보다, 친구보다 조금이라도 가져야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애가 공부를 잘해야 행복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남편의 지위가 높아야 행복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다. 성경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잠 21:9)는 말씀을 통해 행복이 돈이나 명예와는 무관함을 암시하고 있다.

누구나 행복할 수 있지만, 다 행복할 수 없는 이유는 행복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서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의 입자는 그리 크지 않다는 사실이다. 엄청나고 대단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소소한 것에 행복이 숨어있음을 알아.

2011년 5월 경, 우크라이나(Ukraine)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 적이 있다. 당시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와 벨라루스(Belarus) 등, 러시아권 목회자들이 대거 참석하였었다.

세미나 둘째 날 밤, 중추적인 목회자들이 단상으로 나와 이번 세미나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한 이야기는 세미나를 통해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초석 목사님과 같은 능력을 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목회자가 나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성경에 기록된 사역이 왜 우크라이나 교단들에서 사라지게 되었는지 설명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람들의 위협에 굴복하고 타협했더라면 오늘의 예수중심교단은 없다. 사도들을 위협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베드로가 당당히 밝혔던 자세 그대로였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행 4:18~20).

오늘날 교회들의 예배시간이 사람들의 편익에 타협하여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

노”(사53:1).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8). 요즘 목사님도 자주 한탄하시듯 말씀하신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데야 난들 어찌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답은 자명해진다. 초대교회는 하루 종일 모여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고전14:26).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인들에게 각종 은사를 설명하는 중에 한 말씀이다. 예배의 시종이 성령의 임재와 그분의 인도함대로 진행되어야 함을 말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

해주었다.

“우리 교회들도 처음에는 이런 축사 사역을 수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이초석 목사님도 강조하셨듯이 이 사역을 수행하려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를 수행하는데 나태해진 것도 있고, 또 귀신을 쫓아보니 영분별의 문제로 교회 내에 논쟁도 일어나고 복잡해지다보니 하지 말자는 쪽으로 기울어버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목회자가 받게 되는 권위의 손상도 걱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명하여 집행하면 된다는 것을 말이지요. 또한

다. 간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래 하면 교인 다 떨어진다고 걱정한다. 과연 누구를 위해 예배가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이나 하고 그러는 것일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는 것은 지당한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사정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전하고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노력은 해야겠지만,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애쓸 이유는 없다.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으로 인도하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선지자 이사야도 이렇게 한탄했을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

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찌니라”(요4:24). 우리가 예배 때마다 처음 선포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마음과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다. 목사님이 “예배에 성공해야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영원세계에서도 성공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 제일중심으로 살자.

한은택 목사

henry8829@naver.com

이초석 목사 일본 지바집회

10월 23일(화), 24일(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1:8)

성령 받았으면 전도하라

‘본토와 아비와 친구를 뒤로하고/ 죽음을 앞세우고 주만 따라 갑니다/ 주님의 뜻 이루려고 이 목숨 바치오니/ 오 내주여 오 내주여 내게 힘을 주옵소서.../오늘도 떠납니다 주의 복을 전하러/ 내일도 가립니다 주의 복을 전하러’ ‘사도의 길’이라는 저의 신앙 고백송입니다. 저는 지난 주 성가대에게 이 찬양을 부르라고 했습니다. 다시 세계선교와 국내전도에 매진하겠다는 저의 결심을 보인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저 역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목숨을 바치리라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 여러분도 이 일에 적극 동참해주시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저에게만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부탁하셨으니 말입니다. 아니 부탁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1~2). 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데,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함으로 전도가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20:2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16:15),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9~20)고 명령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 단연 으뜸도 영혼을 구원함에 있고(막1:38), 예수님이 12 제자를 삼으신 이유도 먼저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음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막3:14). 교회의 사명 역시 영혼구원에 있습니다. 또한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딤후2:4)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 같이 애가 탑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마18), 집

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아비의 심정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눅15).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릴 사람이 바로 먼저 믿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런데 전도가 어렵지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싶은데 잘 안 되지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지식이나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고 달변가라고 전도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식으로 사도 바울과 견주겠습니까만 그런 바울도

올도 자신의 지식으로 전도해보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아덴에서입니다. 그곳은 철학적으로 뛰어난 곳이며, 우상이 들끓는 곳인데, 바울은 그곳에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과 쟁론도 하고, 변론도 하고, 그들 수준에 맞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반대에 부딪쳐 바울은 설교를 중단해야 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譏弄)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행17:32). 아덴에서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고린도 지방에 이르러 이교도들의 강한 세력과 철학자들의 사변과 교만한 태도,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인간적인 중압감을 느껴 두려워 떨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고전2:3). 그런 그가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

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전2:4~5)는 것이었습니다. 즉 무엇을 전해야 할지,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식이 있는 자나 권력 좀 있는 자를 전도하려면, 아니 누구에게든 전도하려면 바울처럼 두려워 떨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 앞에 설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쁨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4:18~19). 그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며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눅24:49)고 하였고, 120문도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전혀 기도에도 힘썼습니다. 약속대로 성령은 오순절에 임하셨고(행2:1~4), 성령 받은 그들은 나가서 두루 복음을 전

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지요? 그렇다면 나가서 전하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돈 벌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전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은 무기와 연장을 받은 것입니다. 무기가 좋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연장이 좋으면 일이 쉽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세와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여줄 수 있어 전도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찌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막16:17~18)고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하나님 말씀을 확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행14:3).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리고 하나 기억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복잡하게 전하면 안 됩니다. 진리는 자고로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14:6)고 간단하게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도 나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4:12)고 전하면 됩니다. 듣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듣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겠습니까(롬10:14)? 우리도 누군가의 전도로 오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취리라”(단12:3)는 말씀이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총회장 이초석 목사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마가복음 2장 22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포도주로 나오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가족부대에 넣기 전 상태는 포도즙이고 포도즙이 가족부대에 담겨서 발효됨으로써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포도즙을 가족부대에 담아 놓으면 발효되면서 가스가 발생하여 팽창하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팽창하는 힘이 있어서 가족부대는 여러 번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탄력성이 있어야 합니다. 헌 가족부대는 탄력성이 부족하여 팽창하는 가스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터져 버립니다. 새 포도주를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한다면 가족부대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안에서 복음의 능력이 팽창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태의연한 믿음과 형식적 교회 규정에 얽매어 있다면 온전히 예수님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복음의 거센 힘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혼자만의 구원에 만족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소홀하지는 않는가요? 교회가 점차 조직적이고 체계화되면서 영적 모멘텀이 약화되지는 않았나요?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리사욕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봉사자가 하나님의 의보다 사람의 의를 우선하지는 않나요? 예배가 형

식과 제도, 문화만이 남아있지는 않나요? 하나님보다 교회를 우선하여 자랑하지는 않나요? 말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천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돈, 명예, 권력과 같은 현실적 소망이 우선하지는 않나요? 바리새인을 욕하면서 정작 자신은 위선과 형식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만일 이러한 의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는 낡고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헌 가족부대에 해당됩니다. 헌 가족부대에는 새 포도즙이 들어와 발효하여 터져야 합니다. 낡고 어두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믿음 생활이 부서지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가 ‘새로운 조직에는 새로운 변화’라는 외형적 변화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내적, 즉 영적 변화로 인식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세상을 쫓는 대신 예수님을 택하는 선택,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습관,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모두 드릴 수 있다는 마음, 내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기를 간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항상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4:22~24). 이관섭 장로 kwansup1029@gmail.com

유효기간

여보게! 자네는 신혼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얼마나 지나면 콩깍지가 벗겨지는 걸까? 사람들이 대체로 3년이라고 하더군요. 어떤 사람은 야박하게도 6개월이라고도 하더군요. 평생을 살아야 하는데 유효기간이 짧아도 너무 짧은 거 아닌가? 모든 물건에는 유효기간이란 게 있지. 하긴 우리 인생에도 유효기간이 있을진대 세상 만물이겠는가? 나이가 들면서 느낀 것은 기억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걸세. 예전의 힘든 일들, 뼈저리게 아팠던 기억들도 어느덧 그 기억들이 아련해지고 잊히는 것을 보면 말일세.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들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이네. 그것들보다는 유효기간이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빛이 나는 것들,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고 더욱 귀하게 보존되는 것들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라는 거지. 사랑, 용서, 베풀, 배려, 섬김, 구제, 옳고 바른 삶 같은 것 말일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유효기간이 없네. 이천년 전의 그 사랑이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네.

용서에도 유효기간이 없지. ‘일흔 번에 일곱 번 용서하라’ 하신 것은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이거든. 옳고 바른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볼까? 마리아는 곧 죽임을 당하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한 옥합을 부엌네. 이를 보고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그러냐?’라고 제자들이 말했지만, 그녀는 귀한 것을 옳고 의미 있게 사용할 줄 아는 현명한 여자였네. 그런 그녀를 예수님은 유효기간 없이 인정하셨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막14:9). 여보게! 자네도 예수님처럼 마르지 않는 사랑과 용서, 선한 일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며 살게나. 괜히 유효기간에 매여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말고. 그것들은 유효기간이 지나면 다 버릴 것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히13:8).

일과 믿음

‘아시아에서 노동시간이 가장 긴 나라’, ‘일에 미쳐있는 나라’ 등, 우리나라는 일이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나라이다. 실제로 미국 CNN은 한국이 세계최고를 차지하는 10가지 분야를 꼽으면서 3번째로 ‘일 중독’ 부문을 선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이 곧 삶이자 일상이다. 반면에 노동생산성은 OECD 회원국 22개국 중 17위다.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실제의 결과는 열심히 한 시간만큼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하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실시하여 현재의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다. 긴 노동시간도 문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일에 대한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단지 일만 열

심히 할 뿐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 왜 일을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가 결여되어 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이 아닐까? 목적을 상실하고 그저 교회 문턱만 넘나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님은 우리에게 자주 ‘사명에 부도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목적을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 아닐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하면 능률이 오르지 않고 재미가 없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하면 일이 신바람난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다. 천국의 확실한 소망과 그 날에 받을 상에 목적을 두면 누가 말려도, 누가 뭐라 해도 열심을 낼 것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런 자가 성공자요, 행복한 자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 나무니라”(잠13:12). 김성일 집사



쓰지 않으면 녹슨다

지난 8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많다. 나는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단출하게 필요한 것만 지니고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그러나 막상 이사날이 되어서 짐을 내릴 때 나는 너무나 놀라서 할 말을 잃었다. 사다리차로 내린 그 많은 짐들... 그중에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쓰레기였다. 있으면서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창고에 방치되어 있었거나 혹은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된, 말 그대로 진짜 쓰레기였다. 그 때 깨달음의 첫 번째는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소소한 생활 집기부터 나름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사용하지 않으니 그것들의 크기와 가격에 무관하게 먼지만 낀 쓰레기가 되었다.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쓰레기가 된다. 건강을 주셨는데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망가지게 되고, 젊음을 주셨는데 젊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미 늙은이와 같다. 물질을 내게 주신들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종이쪼가리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목사님이 존경스럽다. 하

나님이 주신 은사를 귀히 여기고 목회내내 성실하게 귀신축사의 은사를 사용하셨다. 남들과 비교하지도 않으시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며 문자 그대로 성실히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섬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셨다. 두 번째로 비워야 한다는 것이다. 새롭게 도배하고 단장한 집에 쓰레기를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옛 사람의 죄 된 습관을 버리는 것은 당연하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것을 비워야만 한다. 겉모습만 전도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느새 나도 모르게 창고 한 편에 쌓여져 있는 짐들처럼 슬그머니 틈타고 들어온 게으름과 나태함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주실 상을 누리기에 합당한 비움을 늘 실천하고 있는지 반성해본다. 오늘 하루도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루를 성실하게 채워나가고 나의 옛것들은 비워내길 기도한다. 이현승 전도사 coollee0817@naver.com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 참된 깨달음 ::

믿음은 위기를 먹고 성장한다

우연히 신문에서 ‘모 기업이 소송으로 고객을 압박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축소를 시도하는데, 대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워 피해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2016년 여름, 신문에서 보던 일이 어머니에게 찾아왔습니다. 상대는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포함한 9명의 변호사였습니다. 피고로서 소송에 응하든지,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상대가 원하는 요구를 받아들여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가 기도 중에 사무엘하 17장(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 말씀을 받고, 변호사 도움 없이 아들인 제가 대리인으로서 직접 소송에 응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변호사들의 화려한 경력 앞에 위축되었고, 도저히 혼자 법정에 설 자신이 없어서 회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총회장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신다면, 진정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회장 목사님의 설교 중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으로 응답하셨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직접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법정에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을 뵈고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며, 네가 의롭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법무법인이 너를 상대할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할 것’ 이라고 진심을 다해 축복해주셨습니다. 몇 달에 걸쳐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재판장은 상

대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할 것을 권고하고, 변론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합의권고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장은 이미 상대의 손을 들어 주기로 판단이 선 상태였습니다. 곧바로 ‘유능한 변호사를 찾았어야 했다’는 소리가 들려왔으나 이를 악물고, 오직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 밖에 없다고 간절히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선고기일 2주 전 밤 9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놀랍게도 재판장의 전화였습니다. ‘재판 기록을 재차 살피니 원고가 청구를 잘못된 것 같다. 편견 없이 다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마침내 1심 선고 결과가 나왔고, 승소하였습니다.

며칠 뒤, 상대는 항소했습니다. 2심(항소심)은 1심과 다르게, 가족이 대리인으로 법정에 설 수 없고, 당사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변호사 도움 없이, 100%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어머니께서 법정에 직접 출석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이 제출한 모든 자료를 완벽히 이해해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나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조목조목 기도했습니다.

2심 첫 변론기일에 미리 참석하여 다른 재판을 보았습니다. 재판장은 아주 자세히 질문을 많이 하고, 허술한 주장을 하는 쪽에는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매우 긴장되고 무거운 분위기에 압도되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 되니, 어린 아이 같이 “아

버지가 어린 딸을 대하듯, 재판장이 어머니를 대하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어머니 순서가 되었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재판장이 온화한 미소를 머금으며, “피고 이름이 참 특이하시네요. 가운데 ‘여’자가 천자문에 나오는 한자지요?” 하고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재판장은 몇 마디 부드러운 농담을 더 하고서 제출한 자료를 스스로 요약해서 알려주고, 어머니께 그 내용이 맞는지만 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법정에서 한 말은 “네.”라고 답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재판장은 더 볼 것이 없다는 듯 변론을 종결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재판장을 보는 것이 총회장 목사님을 뵈는 듯 하였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한참 흘리셨습니다. 역시 2심 선고 결과도 100% 승소였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저와 같이 겁 많은 사람에게도 위기를 먹이 삼아 믿음을 성장시켜주시고, 승리의 희열을 맛보게 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바라보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이 더 커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십니다. 삶 속에 골리앗 같은 문제가 찾아올 때,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가장 정확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으니까요!

정명관 성도
vic-777@naver.com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거저 주는 자의 축복

2009년에 TED라는 걸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꽤 충격을 받았습니다. TED는 미국의 비영리 재단인데요, 1984년부터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환경, 디자인, 국제사회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18분간 강연을 하지요. 그 강연 영상을 2006년부터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전 세계인이 수많은 강연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되었고, 엄청난 화제와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 몇 년간 국내에도 TED의 강연 형식을 따라하는 여러 TV프로그램들이 생겨났지만 2000년대 초반에는 TED 말고는 거의 전무했었죠.

제가 처음으로 접한 TED의 강연은 어느 대학생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캐너 없이도 그저 손으로 사물에 영역을 그리면 그 부분이 저절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카메라 셔터를 누르지 않아도 손동작만으로 사진이 촬영되는, 마치 SF 영화에나 나올법한 기술을 개발해 발표했습니다. 그 기술도 놀라웠지만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그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오픈 소스로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연을 마치고 청중들에게 자신의 기술을 기반으로 더 나은 기술을 만들어달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기업에 팔아도 큰돈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모든 사람에게, 그것도 무료로 공개하다니, 그 열린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 경쟁하는 게 일상인 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인지 돈이 되는 지식을 아무런 대가없이 남들과 공유하는 사고방식이 제겐 신선하고 놀라웠습니다. 당시 신입사원이었던 제 모습, 그리고 제 선배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하루는 선배가 컴퓨터 프로그램의 단축키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하는 걸 보고 단축키를 좀 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선배는 “나도 이거 우리 선배가 안 가르쳐줘서 내가 책 사다가 일일이 배운 거야.”라고 대꾸하고선 끝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쩌다 좋은 광고기획서를 구하게 되면 저 혼자 보면서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TED의 그 청년을 본 이후에

저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제가 가진 좋은 자료들을 친구들과 공유하고 제가 아는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려고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면서 함께 성장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학창시절에 내가 아는 걸 친구들에게 설명해주면서 나 또한 한 번 더 배우게 되잖아요. 남에게 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도 받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귀신 쫓는 능력,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건강, 재능, 인맥, 물질. 그 많은 것들을 거저 받았으니 이제는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거저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더 채워주시지 않을까요?

신은혜 성도
dopal0203@naver.com

진리로 무장한 인생

참된 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소망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헌신하는 신실한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은 제법 큰 사업을 하며 교회재정에도 큰 기여를 하는 교회의 보배역할을 하고, 부인 집사님 역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며 이 두 사람은 한 번도 새벽예배를 빠지지 않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예배를 마치고 남편이 일이 있어 먼저 교회를 출발한 지 약 30분이 지나서 청천벽력 같은 연락이 왔는데, 앞서 출발한 남편이 교통사고로 현장에서 소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비보를 접한 목사님과 일꾼들이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서로 눈치만 살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부부가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기며 물질로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며 믿음이 연약한 새신자들이 단단히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고가 난 다음날 아침, 병원 장례식장에 있어야 할 아내 집사님이 새벽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날 역시 새벽예배에 참석하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안타깝게 바라봅니다. 그렇게 모든 장례를 치른 후 변함없이 충성하는 집사님을 바라보던 성도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습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며 그 집사님은 자연스럽게 그 교회에서 신앙의 롤모델이 되었고, 그 후 웬만한 환난과 시험쯤은 훌쩍 뛰어넘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로 거듭났다는 마음 뿌듯한 간증입니다. 참된 믿음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바위틈에서 피어나 그 향기와 자태를 드러내는 한 송이 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살리는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하늘의 권능을 의지하는 우리에게 ‘과거는 에베에셀!, 현재는 임마누엘!, 미래는 여호와아레!’ 뿐입니다.

김정옥 전도사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탐심과 욕심은 동색이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